

3732

주한미군 유지와 전쟁도발 음모

미국은 소련의 붕괴이후 새로운 가상의 적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북한 핵사찰 압력도 이것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진:한겨레 신문>

해심적 요구인 주한미군철수를 민족주의와 민족 가시화시키나가기 위한 반전반핵의 의미를 확산시키나가야 할 것이다.

합의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중에서 민족의 생명과 존엄을 좌우할 외세의 핵위협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 비핵화의 단계적 결실을 위한 국제적 보장, 핵무기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의 전면 사찰은 7건만이라는 공동의 의의에 합의되는 것 뿐만 아니라 외세에 의

해 좌우되던 민족의 운명을 되돌려
서 식민의 역사에 충정부를 찍는
중요한 과업이 때문이다. 해동재
공동회원을 세습하게 미국에 의
해 조국된 해산살을 핑을 해결하
기 위해 건전한 동시생활을 함하
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비
해지대화를 온전히 실현해 내어야
할 것이다. 비핵지대화는 미중의
대립을 기지에서 비탈길로 옮기
는 비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미중
한반도비 해산살을 해두기

용을 금지하는 핵무산재거로 연결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지상핵의
철수이후에도 오고나와나 끝, 수백
만건일 미국의 핵무기가 자유자재
로 드나들면서 해상과 공중을 통해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남과북이 편
문점에 만나고 합의하고 선언하는
행동제나 비핵화문제는 공허한 말
전선에 불과한 것으로 되기 때문

〈사회부〉

이는 통일에 있어서 명백하게 걸림
물로 작용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지 않는 것은 정권이 기본합의서
를 이행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실천
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며, 본질적
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6일(수)부터 7일(목)까지 이틀간에 걸쳐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합의서 해석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 7차 제 주조를 받아들이고,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는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4차 실천기대들을 규정짓기 위한 것으로 설치하고 구성하기로 합의

이 문제이다. 분단 48년을 맞고있는 지금까지도 남·북은 휴전체제로 대치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휴전체제는 쌍방으로 하여금 군사적 대립과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진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은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데도 불구하고 남한 측에서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

이는 통일에 있어서 명백하게 걸림
돌로 작용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지 않은 것은 정권이 기본합의서
를 이행하고도 하는 기본적인 실천
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본질적
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민 회담의 성과로는 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못했으나, 최
대리로 남북출판사무소등 몇가지의
합의서를 도출해 냈다는 것, 8-15
정경절을 맞이하여 기본합의서 제
타이무 기사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
한 한 가지적으 고상바분단이 취

건인하기 위해 민주대개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최근들어 침체되고 있는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규탄투쟁의 재조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부정선거 규탄투쟁의 평가와 향후 대응은 무엇인가.

치루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원자주화루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2년 학자부는 교육재정확보

▲하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의 민주대연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건인하기 위해 민주대개혁 투쟁을
제기해 나갈 것이다.

—이 지문 중위가 군부정선거를 폭로한 이후 전대협에서는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나 그 시기가 각 대학의 등록금 투쟁을 비롯한 학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따라서 학자투에 대한 학우들의 본질적인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전대협은 상반기 학자투를 승리적으로 계승한

서 견인해야 할 대상이지 배척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14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대중들은 아직 야당 이상의 대안들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민

▲29~31일부터 한양대에서
전대협 출범식이 열린다. 이번
전대협 출범식의 의의를 간략하
게 설명해 달라.

원치주와 부흥에
맞는 학자들과 사
물됨으로써 사
역감상 신숙하고
기동성있는 규단
부흥을 조력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군 부흥선
에 대한 폭로들이 계속되고 있
는데, 이에 따라 진검예에서 5월
부흥을 전개한지에 대해서는 단
사 항의만들, 선전비 개정에 대
한 조직적인 부흥을 전개할 것
이며, 원치주-기사 해체부흥도
함께 할 것이다.

도의 참여와 사회

하고 5월투쟁을

되는 측면에서 이번 5월에는 강의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과 개
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5월
은 그 시기상으로 정치투쟁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저당과
대한 학자부 속에서 발전된 교육에
대한 본질적 인식을 하도록 공유
하고 더 나아가 대교육부 투쟁, 인
추진부수업투쟁으로 상승·발전시킬
수 있는 메개고리를 만들 것이다.

광의로 전개합

활발히 전개합

윤건영은 야당을 전인·강제해 내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는 대중투쟁을 중
심으로 내야로부터의 후보진출을
강제해 내라한다. 이것은 후보진출
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대중투
쟁의 강화와 활발히 속에서 야당투
력을 강제해 범을 의미한다. 1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전대회에서는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야당세력을

첫째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승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민주정부수립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는 점. 둘째는 5월7일부터 10일까지

▲5월 이후 각 대학에서는 정

수정후학교생으로 상응·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고리를 만들 것이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야당세력을

출범식을
“사다”

5월 19일은
민자당재집권저지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1차 국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살아 있음을 느끼자



오월은 전민항쟁의 달입니다.

살아 있음을 느끼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을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다. 볼감중이고 있는
과로써 확인한 볼감중이라고 변명하거면, 나
무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물들은 천구의 축, 조도의 선, 민중들의
타개를, 민사당의 횡포, 미국의 거국……
신 한변 생각만 보습다. 우리가 살아있고 있는
이 나라를.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물에서 제주에서, 우리
가 발리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아 있음
을 느끼고 그 속에 푸르니 푸른 소리가 울려
떨어질 살아 있을 열사들을 느껴봅시다.

민사당과 미국과 미움을 반대하는 커다란
목소리들입니다. '열사의 뜻 이여야만 무
사할 집권 끝내지!'.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새날을 여는 민족 자주언론의 선봉
전국 대학신문 기자 연합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결별만 나뉘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꽤 어서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의 선봉

고 박승희 열사

고 김기섭 열사

고 박창수 열사

